

오세훈 지원 나선 유승민 "서울 시민 전월세난 해결해 줄거라 기대" [뉴시스 Pic]

등록 2026.05.14 14:39:5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하지현 조기용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 "오 후보가 서울을 지키는 게 서울 시민과 우리 당, 보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오 후보 선거캠프에서 "오 후보가 이번에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왔다"며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날 출정식부터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후보와는 참 오래됐다. 2000년에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왔을 때 (오 후보가) 16대 국회의원을 했고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쌓아 올린 사이"라며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여러 말씀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대출 규제와 세금만 가지고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같은 분들이 서울시장으로 다시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수도권 주택 문제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한 오 후보가 서울 시민의 전월세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후보도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정부가) 국민배당금이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 배당이 아닌 투명 고용을 위해 세수를 쓸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 후보를 두고 "서울시장이 돼서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당이 잘못된 게 많은데, 저나 후보나 뉘우치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 서울 시민께서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한 번 더 선출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에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는 건 제게 천군만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되도록 많은 분께 도움을 청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접견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접견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myjs@newsis.com, judyha@newsis.com, excusem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